
2018년 시·군의회 의장단 국외연수 보고서

- 연수기간 : 2018. 1. 8.(월) ~ 1. 13.(토)/4박6일
- 연수지역 : 아랍에미리트연합국(두바이/아부다비)
- 연수인원 : 14개 시·군의회 의장 및 직원
- 연수내용
 - 관광자원 활성화 우수사례 벤치마킹
 - 도시계획 및 복합 시설 시찰
 - 기타 사회문화제도 전반에 대한 비교 연수



강원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목 차

1. 연수 개요	3
2. 연수 일정	4
3. 방문국가 현황	5
4. 주요 연수내용	7
5. 연수 후기	13

1. 연수 개요

- 연수기간 : 2018년 1월 8일 ~ 1월 13일(4박 6일)
- 연수지역 : 아랍에미리트연합국(두바이/아부다비)
- 연수내용
 - 관광자원 활성화 우수사례 벤치마킹
 - 도시계획 및 복합 시설 시찰
 - 기타 사회문화제도 전반에 대한 비교 연수
- 연수인원 : 14개 시·군의회의 의장 및 직원 30명

소 속	직위(급)	성 명	소 속	직위(급)	성 명
춘천시의회	의 장	김주열	철원군의회	의 장	문경훈
	주무관	김승환		주무관	김근태
원주시의회	의 장	박호빈	화천군의회	의 장	최진규
	주무관	정지훈		주무관	김두식
강릉시의회	의 장	조영돈	고성군의회	의 장	김영문
	주무관	최승현		사무과장	이영광
동해시의회	의 장	정성모	양양군의회	의 장	이기용
	사무과장	정창화		주무관	박준길
태백시의회	의 장	심용보	화천군의회	의 장	최진규
	의사담당	김창동		주무관	김두식
속초시의회	의 장	김종희	양구군의회	의 장	최경지
	주무관	박진성		주무관	방수아
홍천군의회	의 장	신동천	인제군의회	의 장	한의동
	의사담당	박유동		의 원	이춘만
영월군의회	의 장	엄승열		담 당	한경윤
	의사담당	엄기평		주무관	심우용
계			30명		

2. 연수 일정

일자	지역	교통편	시간	세부일정
제1일 01/08 (월)	인천 두바이	개별집결 KE 951 전용버스	09:30 12:45 18:15	인천 공항 집결 후 출국 수속 인천 출발 / 두바이 향발 [약 10시간 소요 / 시차 : -5시간 느낌] 두바이 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제2일 01/09 (화)	두바이	전용버스	09:00	호텔 조식 후 ■ 공식 일정 : 두바이 관광청 중식 후 호텔 귀환하여 사파리 투어를 위한 환복 등 준비 ◆인공 도시 두바이에서 느낄 수 있는 사막사파리 체험 호텔 투숙 및 휴식
제3일 01/10 (수)	두바이	전용버스	09:00	호텔 조식 후 두바이 공식방문지로 이동하여 ■ 공식 일정 : 스키 두바이 (10:00-11:00) 중식 후 [두바이 문화 탐방] ◆두바이 최고급 호텔 7성급 버즈 알 아랍 호텔(외관감상) ◆아랍 재래시장을 현대식으로 꾸며 놓 쇼핑센터 머디나 주메이라 ◆야자나무 모양의 인공섬 팜 주메이라 아일랜드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제4일 01/11 (목)	두바이 아부다비	전용버스	09:00	호텔 조식 후 아부다비 향발 (약 2시간 소요) [아부다비 문화 탐방] ◆세계 최대의 회교 사원 셰이크자예드 모스크 ◆기네스북 인정 세계 최대 경사 건물인 캐피탈 게이트 타워 ◆아부다비의 7성호텔 Emirates Palace호텔(외관 감상)

	두바이			◆페라리 월드 등 76만평 규모로 추진 중인 위락 중심 개발지 야스 아일랜드 두바이 귀환하여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제5일 01/12 (금)	두바이	전용버스	09:00	호텔 조식 후 [두바이 문화 탐방] ◆통치자 셰이크모하메드의 궁 셰이크모하메드 팰리스 ◆과리 개선문 형상의 본부 건물인 두바이국제금융센터 및 인근의 에미레이트 타워 등 조형미 감상 ◆두바이에서 가장 오래된 동네로 현재는 카페, 갤러리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바스타키야 ◆두바이의 젓줄인 크릭과 데이라 지역의 유명 건축물 등 감상할 수 있는 두바이 크릭포인트 ◆두바이의 역사, 자연, 풍습 등을 한눈에 두바이박물관 ◆두바이 크릭을 가로지르는 대중교통수단 체험 아브라(수상택시)체험 ◆미국 다음의 교역량을 자랑하는, 아랍인들의 귀금속 선호 풍속을 짐작할 수 있는 금시장 ■ 두바이몰 방문 - 아이스링크장 외부 견학 ◆버즈칼리파 앞에서 펼쳐지는 “ 두바이 분수쇼 ” 감상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공항 도착 후 출국수속 두바이 출발/ 인천 향발 [약 8시간35분 소요]
제6일 01/13 (토)	인천		10:50	인천 공항 도착 후 입국수속 연수 종료

3. 방문국가 현황

1

아랍에미레이트(Arab Emirates)

- ◆ 수도 : 아부다비(Abu Dhabi)
- ◆ 인구 : 약 6,072,475명(2017.07. est. CIA 기준)
- ◆ 면적 : 83,600km²
- ◆ 주요도시 :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알아인(Al Ain), 샤자(Sharjah)

- ◆ 주요민족 : 아랍족(Arab)
- ◆ 주요언어 : 아랍어(Arabic), 영어(English)
- ◆ 종교 : 이슬람교(수니파 84%, 시아파 16%)

아랍 에미리트 연합은 걸프만에 위치해 있으며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샤자(Sharjah), 라스 알 카이마(Ras al Khaimah), 움 알 콰인(Umm al Qawain), 아즈만(Ajman), 후자이라(Fujairah)의 7개 에미리트가 연합된 연방국가로 원래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지배를 받던 토후국(土侯國)이었다가 독립했다.

아랍 에미리트 연합은 쿠웨이트와 함께 우수한 석유수출국으로 국민 1인당 소득이 2만 5천불에 이르는 부자나라다. 그래서인지 이미 중동의 국제도시로 자리잡은 이나라의 두바이는 그야말로 세계 최첨단의 시설이 갖춰진 현대 도시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다.

■지리■

아랍에미리트는 아라비아반도의 북동쪽끝에서 페르시아만으로 코뿔소의 뿔모양으로 불쑥 튀어나온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과 서쪽으로는 사우디 아라비아, 동쪽으로 오만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북쪽 해안은 페르시아만 건너편으로 이란과 마주보고 있으며 카타르는 북서쪽으로 약 50킬로미터(30마일)지점에 있다. 7개의 에미레이트(토후국)는 아부다비(Abu Dhabi), 아즈만(Ajman), 두바이(Dubai), 후자이라(Fujairah), 라스 알-카이마(Ras al-Khaimah), 샤르자(Sharjah), 움 알 카이와인(Umm al Qaiwain)이다. 아부다비 에미레이트가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작은 에미레이트인 아즈만은 단지 250평방킬로미터(100평방마일)에 불과하다.

■기후■

아랍에미리트의 자연은 열대는 아니지만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를 제외하고는 고온다습하며,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가 심하고 연강수량은 60~

100mm 정도이다. 영토의 동단은 라스마산담곶(串)으로부터 남쪽으로 뻗어 있는 하잘산맥이지만, 그밖에는 평탄하며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연안에는 조그마한 섬들이 많다. 여름 기온은 연안지역이 46℃, 사막 내륙은 49℃ 또는 그 이상이고 1월 평균기온은 18℃이다.

■ 사회문화 ■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은 연합국이 되면서부터 중동지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된 국가가 되었으며 내부의 갈등과 긴장을 해결하며 안정적인 체제구축에 성공했다. 아랍 에미레이트 연합은 지역별로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아부다비(Abu Dhabi)에서 두바이(Dubai)까지 차로 얼마 걸리지 않지만 엄청난 지형/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아부다비(Abu Dhabi)가 문화적으로 아주 보수적인 반면 두바이(Dubai)는 훨씬 진보적 자유 성향을 띠고 있다.

결프만에 해안가에 위치한 이 작은 무슬림 나라는 여러 세기 동안 숨겨져 왔으나 1970년대 석유를 발견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석유 파동의 결과로 지난 30년 동안 가난에서 일약 아랍 에미레이트의 국민들을 전설적인 부자대열에 올려놓은 것이다.

4. 주요 연수내용

1

중동의 진주, 두바이

- 아랍 에미리트 연합의 가장 활기찬 도시 두바이는 '모래', '작열하는 태양', '자유로운 쇼핑'과 같은 단어가 연상되는 도시다. 아랍 에미리트 연합에 약 1세기전 석유가 발견되어 생산되기 이전에 두바이는 작은 촌락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석유가 발견되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두바이에는 고속도로가 뚫리고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가 들어서 사막 위의 신기루처럼 도시가 생성된 것이다.

- 두바이 비치에 세워진 7성급 호텔인 버즈 알 아랍 호텔(Burj Al Arab Hotel)이 전세계적으로 화보집이나 달력, 인터넷 매체를 타고 인기를 얻으면서 자연스럽게 두바이라는 도시도 유명해졌으며 2005년 5월 1일부로 매일 1회씩 아랍 에미리트 항공의 직항이 한국과 개설되면서 한국 관광객들도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 바다를 향해하는 거대한 아라비아 돛단배를 형상화해서 만들어진 버즈 알 아랍 호텔(Burj Al Arab Hotel)은 지금은 타계한 통치자 셰이크 라시드(Sheikh Rashid)가 정책적으로 건축하도록 한 두바이의 명물로 당시까지 세계에 알려지지 않은 두바이를 세계에 알리는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 버즈 칼리파 (Burj Kalifa)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아르마니 호텔, 레지던스, 오피스, 옛 더 탑 전망대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 건물이다. 124층 전망대에 올라가 상상의 도시, 두바이의 전경을 감상하는 것을 추천한다. 124층까지 60초 만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매우 색다른 기분도 느낄 수 있다.



◆ 버즈 알 아랍 호텔

해안으로부터 280m 떨어진 인공섬위에 지어진 총 38개 층, 321m 높이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호텔로 28층에 위치한 헬기 착륙장에서 타이거 우즈가 드라이버 샷을 날리고, 로저 페더러와 안드레 아가시가 비공식 경기를 가져 이목을 끌기도 한 곳이다.



◆ 두바이 금융센터

바클레이, 메릴린치, 스탠더드 앤 푸어스, 모건스탠리, 골드만 삭스, 도이체 방크 등 세계 금융의 선두주자들이 이곳에 밀집해 있다. 한국의 수출입 은행도 2005년에 40번째로 승인을 얻어 영업 중이다.



◆ 팜 주메이라 아일랜드

팜 주메이라 아일랜드는 2010년 완공된 인공섬으로 주상 복합 형태의 주거 시설이 있으며,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모노레일, 휴양을 즐기기 위한 주거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다.



◆ 사막사파리

두바이는 사막위에 지어진 인공도시로 아랍 민족의 삶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 사막을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 4륜 구동 쉼차를 타고 금빛 사막의 언덕을 오르내리며 짜릿한 스릴을 느끼고, 아랍의 전통식으로 준비된 특식을 먹으며, 아름다운 아랍여인의 벨리댄스(BELLY DANCE)를 감상하고, 아랍 전통 물담배를 피우며 아랍인의 삶을 몸으로 느껴볼 수 있다. RED SAND는 UN 지정 자연보호 구역이다.



◆ 아브라 수상택시

아브라는 아라비아 전통 수상택시로서 두바이에서는 크릭을 건너는 대중교통수단이다. 오래전부터 두바이 경제의 중심지였던 두바이 크릭은 바다에서 시작해 내륙의 라스알코 와일드 센추리까지 14KM 길이, 아랍지역의 전통 수상 택시인 아브라를 탑승하여 약 20분간 두바이의 아름다운 전통양식 건물들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주메이라 편도 모노레일

육지와 사막의 기적 팜 아일랜드 아틀란티스 호텔까지는 모노레일을 타고 이동할 수 있고 차량으로 이동 시 볼 수 없는 팜 아일랜드의 전경을 높은 곳에서 조망할 수 있다. 또한 팜 아일랜드가 야자나무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 두바이 몰

부르즈 칼리파 옆에 위치한 두바이의 대표적인 쇼핑몰로 축구장 50개를 합쳐놓은 크기의 면적이다. 많은 쇼핑객들이 찾고 있으며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중간중간 지도를 보며 동선을 짜며 이동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야간에는 두바이 몰의 야외에서 음악에 맞춰 분수가 움직이는 분수쇼를 볼 수 있다.



◆ 에미레이트 몰

어마어마한 크기로 인해 몇시간을 둘러라도 모두 둘러보기 힘든 고급 쇼핑몰이다. 스키장은 리프트까지 구비되어 있어 실제로 스키장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만약 아이와 함께 에미레이츠 몰에 방문해 여유로운 쇼핑을 즐기고 싶다면, 스키장에 아이들을 보낸 뒤에 쇼핑을 할 수 있다.

2

아랍 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

- 아랍에미리트 연방의 수도로 정치·경제의 중심지이고, 인구 67만명의 도시이다. 1958년에 페르시아만에 접한 앞바다에서 5억 톤으로 추정되는 석유가 발견되고 나서는, 급속도로 발전을 거듭하여 1968년에 5개년 개발계획을 시작하여 현대적인 도시로서 탈바꿈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아부다비 섬에서 본토와는 인공제방으로 연결되고 있다.



◆ 그랜드 모스크

두바이에 위치한 그랜드 모스크는 1960년에 파괴되어 1990년에 다시 지어진 곳이다. 웅장하고 화려한 그랜드 모스크에는 9개의 대형 돔과 45개의 작은 돔들이 있으며, 한번에 최대 1,200명의 신자들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매우 크다.



◆ Emirates Palace호텔(외관감상)

에미레이트 팰리스 호텔은 축구장 1400개를 펼쳐놓은 면적을 자랑하며 건설비만 약 4조가 들어간 7성 호텔이다. 건물 한쪽 끝에서 다른쪽 끝까지 약 1km를 차지하며 palace(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듯이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건물의 외형을 자랑한다. 금가루 카푸치노 커피를 마실수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이 이 호텔에 머물곤 하는 곳이다.

3

공식일정(두바이 관광청, 스키두바이)

■ 두바이관광청 ■

두바이 관광청 DTCM(Department of Tourism and Commerce Marketing)은 두바이 관광에 대한 기획, 감독, 개발, 마케팅을 책임지는 주요 정부기관. 이와 함께, 에미리트 무역 마케팅 및 진흥을 담당하며, 호텔, 관광업체, 여행사, 기타 관광 관련 서비스업의 허가 및 분류를 전담.

관광객 유치 및 해외 기업의 두바이 투자 장려를 통해 두바이 경제 발전에 일조하며, 2020년까지 연간 방문객 수 2,000만 명을 환영할 수 있도록 두바이 관광 비전 2020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DTCM은 세계 최고의 관광 국가로서 두바이의 위상을 확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두바이에 위치한 본사를 비롯하여, 현재 전 세계 20개 사무소가 운영 중.

○ 비 전 : 2020년까지 세계 여행, 비즈니스, 행사를 위한 최고의 국가로 두바이 위상 확립

○ 미 셴 : 관광객 유치 및 해외 기업의 에미리트 투자 장려를 통해 두바이 경제 발전에 일조

○ 실천사항

- 두바이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추천되는 레저 및 비즈니스 여행지로 만들기
- 두바이 관광 및 무역 상품의 국제적 입지를 혁신적이며 효과적으로 향상하기
- 모든 관광 관련 분야에서 최첨단 솔루션과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통해 여행자들의 기대감을 재정의 하기
- 두바이를 방문하고 재방문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영감을 주는 차세대 경험 선도하기
- DTCM은 긴밀한 민관 협력을 통해 여행 상품으로서 두바이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두바이를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마케팅하여 관광산업이 에미리트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요한 책임의 노력을 다함.

○ 질의답변

♣ 동해시의장 : 구체적인 관광마케팅 전략(숙박_호텔, 여행사, 투어가이드)은?

☞ 파리, 런던 등 세계 관광대표 도시의 경우 마케팅에 치중한 전략을 취하나 그 외 지속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있지 않음. 두바

이의 경우 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여러 단계의 기준을 설정하여 라이선스 등 엄격한 자체기준을 설정·관리하고 있음

☞ 인재균의장 : 한국 관광객들의 특징?

☞ 무역, 기타 비즈니스를 겸한 관광과, 특히 목적을 지닌 단체관광객이 주를 이룸. 현재는 배낭여행을 목적으로 중간 기착지로써 젊은 층의 관광객 수도 증가.

☞ 춘천시의장 : 환승상품을 많이 개발해야 하지 않나?

☞ 당일투어, 오전투어, 야간투어 등 여럿 상품개발에 노력하고 있음.



스키두바이(Ski Dubai)

아랍 에미레이트 두바이 최대 쇼핑몰인 에미레이트몰(Mall of the Emirates)안에 설치된 중동 최초의 실내 스키 리조트. 실내 스키장의 면적은 2만 2500m² 으로 축구장 3개 크기이며, 최대효과를 내는 단열 시스템이 낮에는 영하 1℃, 인공눈이 만들어지는 밤에는 영하 6℃의 기온을 유지. 실내스키장에는 6,000톤의 인공 눈을 뿌려 만드는 서로 다른 난이도의 5개 슬로프가 있으며, 슬로프 최대 길이는 450m이고 최고지점 높이가 85m, 너비가 80m. 최대 수용규모는 1,500명. 슬로프를 올라갈 때 야외 스키장과 마찬가지로 리프트로 이동하며, 어린이와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면적 3,000m²의 스노우파크 등 놀이시설임.

○ 운영 프로그램 : 스키스쿨, 폴러(스노우 튜브), 스노우 펭귄, 스노우 블

렛라이드 등

		
△ 시설담당자 설명청취	△ 단체사진1	△ 단체사진2

5. 연수 후기

이번 연수를 통해 건설(건축), 교통, 역사, 관광까지 다양한 분야의 많은 곳을 둘러보며 경험을 했다. 때론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환호를 했고 때론 실망과 걱정도 있었다. 그러나 창조는 모방과 반성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깨우치면 될 일.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우리 강원도만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 시켜야 되겠으며, 연수에서 배운 것들은 강원도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비슷한 건축물 일색인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건물 하나하나가 독특하고 개성 있는 모습을 가진 두바이는 건축물 하나가 도시에 생명력과 활력을 불어넣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었다. 더욱이 앞으로 다가올 원유고갈을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관광도시로의 변혁을 감행한 그 위용과 웅장함은 아랍에미레이트의 자랑, 그 자체였다.

UAE의 도시계획은 고속도로가 위아래를 관통하는 구조로 잘 구성되어 있어 신호등이 드물다는 장점이 있고, 메트로 또한 비슷한 경로를 따르기에 교통편의성은 상당히 잘 갖춰져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도시 전체의 인프라는 의외로 잘 갖춰져 있었으며, 혼잡한 공항도 확장 중이기에 두바이는 관광도시로서 경쟁력을 유지할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아직도 도시 곳곳에 타워크레인이 세워져있다는 것이다. 이미 수많은 빌딩이 도시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음에도 확장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 행여 무모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들의 의욕만큼은 세계최고라 자부할 수 있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세계 최대/최고라는 수식어가 많이 존재한다. 이름 없는 촌락, 거친 모래사막에서 UAE 유일의 국제무역항으로 물류, 항공, 관광 중심지로 군림하고 있다. 한번쯤은 들어봄직한 더 높고, 크며 독특한 디자인의 최고급 건물들과 감히 엄두를 못 낼 만큼 바다를 메워 도시를 건설하는 것. 지도자의 목표와 정책방향에 따라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할 수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산유국이지만 매장된 원유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산업, 특히 관광산업분야에 많은 연구와 투자를 통해 새로운 활로를 찾는 모습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자원의 부족함이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새로운 혁신을 통해 부족함을 메꾸야 함을 깨달을 수 있었다.

외국 연수를 간다는 것은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한다. 언어, 풍습, 식생활 등 모든 것이 낯선 환경에서 며칠간이지만 생활해야 한다는 묘한 감정은 연수를 떠나기 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기분일 것이다. 하지만 다녀온 지금은 뿌듯함과 푸근함 그리고 앞으로 공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욕으로 가득차 있다.

특히 금번 연수를 함께 할 수 있게끔 배려와 정성을 모아주신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6일간 동고동락하며 무탈하게 연수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14개 시·군 직원여러분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